

# “국가주도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필요”

### 전북연구원, 실버산업 거점도시·R&D 핵심도시 위한 지역특화발전 전략 제시 2030년 미국 실버경제 시장규모 3.5조 달러·유럽연합 5.0조 달러로 확대 전망

전북연구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미래성장동력인 실버산업의 거점도시이자 R&D 핵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이주브리핑 ‘국가주도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 필요하다’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고령친화산업 수요의 팽창에 발맞춰 전북을 실버산업의 글로벌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세부적인 전략구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은 2040년에는 33.9%, 2076년에는 46.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독일, 일본 등도 고령인구의 비율이 2050년에는 3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수요의 확대에도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IT 스마트 기기과 돌봄로봇을 활용한 고령친화제품 시장도 급속하게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수 고령화 국가에서 안정적 소득기반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고령노인으로 진입하면 고령층이 소비주도층으로 등장하여 노인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은 실버경제의 규모가 2020년 2조 달러에서 2030년에는 3.5조달러로, 유럽연합도 실버경제의 규모가 2020년 3.7조달러에서 2030년 5.0조 달러로 증가하여 전체 산업에서 3번째로 높은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Age-Tech(에이지테크) 기반의 AI 돌봄로봇, 웨어러블, 스마트홈케어 등을 개발하고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전북특별자치도도 미래성장동력인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연구원은 전북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중국 등 해외수출시장 겨냥한 연구개발 및 생산·수출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기술개발’에서 ‘시험평가’ 그리고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의 R&D인프라를 집적화하여 고령친화산업생태계 구축하고 해외시장 진출

의 거점도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는 개발단지와 인력양성 단지로 전문화하여 age-tech 기반 기술개발과 평가인증, 기업지원 중심으로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양성 단지는 고령친화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창업교육,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물적 기반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기에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설립을 통해서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분양홍보를 위한 기업유치, 기업정보 및 실적관리, 국내의 유관기관 협력 및 투자유치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은 교통과 물류인프라 잘 갖추어진 새만금의 훌륭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되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목표로 국가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5일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사랑도민증을 연계한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 전북 대표 정책·농특산물 홍보 나서

### 용산역·강원도청서 고향사랑기부제·전북사랑도민증 동시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4일 서울 용산역과 5일 강원특별자치도청을 차례로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사랑도민증을 연계한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외지 방문객과 타 지역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북의 대표 정책과 농특산물을 함께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4일, 서울의 관문인 용산역에서는 설을 앞두고 이동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북사랑도민증의 발급 방법과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어 5일에는 2024년 7월 체결된 상상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강원도청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 대표 답례품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약과·명품 시식을 통해 전북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에서 10만원 이상 기부 자에게 오미자청 또는 생강청 선물세트를 증정하는 현장기부 이벤트로 참여 분위기를 높였다.

도는 이번 대면 홍보가 고향사랑기부 참여 확산과 함께 전북 답례품과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앞으로도 전국 주요 거점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통해 두 제도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체계 개편

### 국정과제·5극3특 균형성장 기조에 맞춰 ‘추동력 확보’ 초점 규제·항만·기반시설 3대 축 ‘결과물 중심’의 운영 체계 재편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국정과제 51번 ‘새만금 도약을 실질적인 사업과 예산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체계를 개편한다.

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킷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전문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합리화 △한반도 물류거점 △기반시설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 실행형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관련 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과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 연구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워킹그룹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 형태로 운영되면서 정책 수립이나 예산 확보와 직접 연결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노출해왔다.

이에 도는 국정과제와 5극3특 균형성장 정책 기조, 현안 과제를 하나의 실행 구조로 통합해 중앙부처 대응과 국가예산 확보,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결과물 중심’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3대 과제별 분과 운영이다. 규제합리화 분과에서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센트럴스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현안 중심의 정책 설계 및 논리 개발을 강화하고, 민간·산업

계 참여를 확대해 실행 가능한 제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

항만 물류거점 분과는 새만금 신항과 배후부지 개발 등 핵심 사업을 축으로 대외 설명과 사업 추진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행 논리와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며, 서해권 K-물류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다진다.

기반시설 분과는 전력, 상하수도 등 광역 인프라와 공공 주도 매립을 국정과제 실행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고, 국가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절차와 연동되는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토지이용계획 정비 등도 이 분과에서 함께 다룰 예정이다. 운영 방식 역시 전면 쇄신된다. 3대 과제별로 책임실무제를 도입해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간사를 맡고, 도 담당부서 실무진이 회의 운영과 아젠다 발굴, 자료 작성을 전담하는 구조다.

분과장은 도 담당팀장이 맡아 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 대응 자료 등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결과물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외부 전문가 참여 체계도 달라진다. 기존의 고정 위촉 방식을 탈피해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회의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탄력적으로 초빙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만호 기자

## 10일 '2026년 기업지원사업

### 설명회·피지컬AI기술 세미나'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자동차·뿌리·특장·항공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0일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2026년 기업지원사업 설명회 및 피지컬AI 산업 인식화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공동으로 올해 기업지원사업을 도내 기업에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제조혁신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피지컬 AI(Physical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자동차 및 뿌리산업, 특장차, 항공 등 관련 기업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하는 세미나는 총 12개 사업, 108억 원 규모의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수행하는 자동차산업 4개 사업, 뿌리산업 4개 사업, 특장차산업 3개 사업, 항공 분야 1개 사업 등 총 12개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융합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부에서는 제조 공정을 직접 제어·지능화하는 피지컬AI(Physical AI)를 주제로 한 기술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소나무재선충병

### 확산 차단에 예산 111억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 111억 원의 방제예산을 투입하고, 460ha 규모의 수종전환 방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수종전환 중심의 방제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단독 제 1차 중심의 단기 방제를 넘어, 숲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장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근 이상기온과 기후변화로 매개충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곤산, 익산, 정읍, 김제, 순창 등 집단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도는 반복 피해 지역에서는 단순 고사목 제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방제 방향을 전환했다.

수종전환은 재선충병이 반복 발생하는 소나무림을 병해충과 산불에 강한 다른 수종으로 바꿔 감염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는 방식이다. 재선충은 소나무류에서만 생존하는 특성이 있어, 숲에서 소나무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확산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수종전환 대상지는 반복 피해지와 집단 발생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단독 제거, 소구역 모두베기 등을 병행 적용해 지역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고, 훈증 처리목을 신속히 수집해 재감염원을 차단한다. /이만호 기자

## ‘숨 쉴 권리’ 한 단계 높이는 계기

### ‘실내공기질 관리개정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만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을 도민 생활공간의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확립 있게 정비하는 것”이라며 “측정·공개·점검·지원의 근거를 구체화해 도민의 숨 쉴 권리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실용 중심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도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터미널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개·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만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도민 생활공간의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확립 있게 정비하는 것”이라며 “측정·공개·점검·지원의 근거를 구체화해 도민의 숨 쉴 권리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농산부산물 자원 순환 제도 개선을

### 임승식 도의원, 오늘 본회의서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촌 현장에서는 막대한 양의 농산부산물에 여전히 ‘폐기물’로 취급되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상 농산부산물 관련 규제의 전면 재검토, △농산부산물의 순환지원 인정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조속한 개정, △농산부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정책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폐기물”로 취급되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상 농산부산물 관련 규제의 전면 재검토, △농산부산물의 순환지원 인정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조속한 개정, △농산부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정책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 노병섭 교육자치혁신연대 대표 “전북교육감 불출마”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노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북교육감 후보들의 반복되는 표절과 대립 논란으로 전북 교육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아름답지 못한 현실 속에서 출마의 것발을 내리겠다”며 선거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원칙과 민주 진보 철학을 기점으로 아름답게 진행해야 할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 과정이 정상적 절차를 벗어나 내부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실망과 깊은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이 매우 참담하고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 심히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장 깊게 연결돼 있다. 그렇기에 정치적 셈법이나 유희리를 떠나 오직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육이 실현돼야 한다”며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도민과 교육 현장 앞에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후보자 스스로가 엄격한 기준과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고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성근 기자

## ‘전북형 반할주택’ 2단계사업 공모 추진

### 도, 청년·신혼부부 대상 무이자 보증금·임대료 감면·분양전환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인 ‘전북형 반할주택’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026년 전북형 반할주택 2단계 사업 대상지 공모를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2개 시·군 총 2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 지원 △월 임대료 50% 감면 △자녀 출산 시 월 임대

료 전액 감면 △1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전환 기회 제공 등 3대 혜택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주거정책 모델이다. 특히 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제도는 주거 지원과 출생 장려를 연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북개발공사에서 공모 접수를 진행한 뒤, 3월 말 평가를 거쳐 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형 반할주택은 단순히 주거비를 낮추는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의 선택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2단계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청년이 머물고 가정이 뿌리내리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2024년 정수군 2025년 남원시·임실군 등 총 3개 시·군 320세대의 전북형 반할주택 1단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북개발공사에서 공모 접수를 진행한 뒤, 3월 말 평가를 거

쳐 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형 반할주택은 단순히 주거비를 낮추는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의 선택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2단계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청년이 머물고 가정이 뿌리내리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2024년 정수군 2025년 남원시·임실군 등 총 3개 시·군 320세대의 전북형 반할주택 1단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북개발공사에서 공모 접수를 진행한 뒤, 3월 말 평가를 거

## ➔ 1면에 이어... 전북자치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가동

생활편의 분야에서는 교통과 의료, 환경 대책이 강화된다. 설 연휴 기간 고속버스는 하루 평균 130여 대가 증편되고 철도는 호남선과 전라선을 중심으로 총 50회 추가 운행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15일부터 18일까지 면제되며, 공영주차장 29,9,000여 명이 무료 개방된다.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에서는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어는 병·의원과 약국도 확대 운영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쓰레기 특별수거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 비상상황실도 운영한다.

안전 대응 분야에서는 명절 종합상황실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소방관서 특별경계 근무와 함께 전동시장, 승강기 연안역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과 특별 소방 검사가 진행된다. 수도시설 점검과 가족전염병 대응체계도 상시 가동된다.

노홍서 행정부지사는 “작은 관심과 나눔이 모여 모두에게 따뜻한 위트가 되는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